

명자 룡산사 연혁

명자(鼉跖)라는 지명은 일제 시대 제도 개정 당시 동음의 일본어인 ‘완화(萬華)’로 변경되었지만, 원래 명자는 평포족(平埔族)의 케타가란어로 통나무 배를 뜻하는 방카(Banka)를 음역한 것으로, 당시 평포족이 단수이강(淡水河) 상류에서 통나무 배에 고구마 같은 농작물을 싣고 와 한족들과 거래를 한 곳이라 해서 불리게 된 이름입니다.

과거 한족이 배를 타고 타이완 해협을 건너와 개간을 하던 당시에는 거센 풍랑과 해류에 배가 뒤집혀 사람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잦았으며, 타이완 북부의 미개발 지역에서는 전염병까지 돌아 환경이 매우 열악했습니다. 그러던 중 청나라 강희 48년(서기 1709년), 취안저우(泉州)의 삼읍 사람(진장晉江, 난안南安, 후이안惠安 세 현을 아울러 삼읍三邑이라 함)과 통안(同安) 사람이 ‘진퇴장간호(陳賴章墾號)’를 조직해 관방의 허가를 받고 조직적으로 타이베이 분지를 개간하면서, 삼읍 사람들이 잇달아 바다를 건너 타이완으로 왔으며, 이때 사람들은 신에게 기도를 올리며 고향의 사원에서 신춧단지를 모시고 왔습니다. 그후 명자 지역에 서서히 마을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건륭 3년(1738년)에 푸젠성 진장현(福建省晉江縣) 안하이 룡산사(安海龍山寺)의 관세음보살 분령을 모셔와 명자 룡산사를 합차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명자 룡산사는 가경 20년(1815년)에 대지전을 겪고 보수되었으며, 동치 6년(1867년)에는 폭풍우에 피해를 입고 재건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이쇼 8년(1919년)에는 흰개미가 기둥을 파먹어 당시 주지였던 푸즈 대사(福智大師)가 모금을 통해 복원하였는데, 본인이 앞장서 평생 모은 칠 천여 위안을 기부하면서 룡산사가 현재와 같은 규모로 재건되는 데 큰 힘을 보탰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기간이었던 중화민국 34년(1945년)에는 공습을 받아 정전이 전파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지만, 관세음보살의 성상만은 연화대에 단정하고 장엄하게 앉은 모습으로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집에 공습이 닥치면 주민들은 모두 관세음보살의 연화좌 아래를 피난처로 삼았는데, 전하는 바에 따르면 공습이 닥치기 직전에 주민들이 모기의 극성에 건디다 못해 분분히 집으로 돌아간 덕에 재난을 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이 모든 것이 관세음보살이 보우 덕이라 믿었으며, 이로 인해 관세음보살의 신위가 더욱 높아지고 사람들의 숭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명자 룡산사는 총 면적이 천 팔백여 평에 이르는 남향 건물로, 회자형(回字形) 구조에 고전적인 삼진 사합원(三進四合院) 형태의 궁전식 건축물입니다. 전전(前殿)은 열 한 칸으로, 각각 삼천전(三川殿), 용문청(龍門廳), 호문청(虎門廳)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붕은 정삼천 사수

동주용주

삼천전(三川殿) 정면 입구에 세워져 있는 타이완 유일의 구리 주조 용 기둥은 1920년 고 사면(廈門)의 전지(剪花: 종이 공예) 장인인 홍쿤푸(洪坤福) 선생이 틀을 만들고 타이베이 제철소의 리루싱(李祿星)이 주조에 만들었습니다. 이 기둥에는 선명한 용의 운곽과 봉신방 조각상이 장식되어 있어 당시 장인의 정교한 기술을 엿볼 수 있습니다.

팔교(正三川四垂八翹)로 이루어진 팔각지붕 처마 형태입니다. 너비와 높이가 절묘한 대비를 이루고 있어 중앙과 좌우의 높낮이에서 비범한 기세가 느껴집니다. 또한, 삼천전 앞에는 타이완에서 보기 드문 구리로 된 반룡주(銅鑄蟠龍柱)가 있고, 정면의 벽에는 취안저우 백석과 청두석, 관음산 바위 등 세 가지 종류의 석재를 사용해 만든 석조에 삼국연의와 봉신방 이야기가 새겨져 있습니다.

정전(正殿)의 지붕은 팔각지붕 겹처마 형태이고, 사면의 주마랑(走馬廊)은 모두 마흔두 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전 외벽에는 저명한 서예가들이 새긴 석각이 여러 폭 남아있습니다. 또한, 정전 내부의 나선형 천장은 일일이 박고 조이는 수고를 들이지 않고 천부 두공 구조로 연결했습니다. 후전(後殿)의 지붕은 마찬가지로 팔각지붕 겹처마 형태이고 양 날개는 맞배지붕 홑처마 형태이며, 용마루에는 쥬넨(剪黏)으로 장식한 복록수(財子壽) 진흥 인형이 놓여 있습니다. 이곳은 유교와 도교의 모든 신물을 모시는 곳입니다. 양옆에는 수호용이 각각 종루와 고루에 배치되어 있으며, 종과 북은 가마 장식과 같은 평평한 육각형 지붕 형태로 타이완에서는 처음 선보이는 독특한 조형입니다. 룡산사 전체 지붕의 용마루와 비침은 봉황, 기린과 같은 상징물로 꾸며져 있고, 쥬넨과 교지도(交趾陶)로 장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색채가 매우 아름다워 가히 타이완 쥬넨 예술의 정수라 할 수 있습니다.

명자 룡산사는 중화민국 107년(2018년)에 국가지정 고적으로 격상되었습니다. 타이베이시의 주요 종교 성지이자 명승고적인 명자 룡산사는 고적 유지 및 보수에 계속 힘쓰고 있음은 물론, 매년 정기적으로 음력 정월 꽃등 전시회, 4월 관불회와 같은 전통적인 기념일 제사 및 민속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중화민국 102년(2013년)에는 무형 문화 자산으로 등록된 중원 우란분승회(中元盂蘭盆勝會) 등을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대학과 전문대학에 장학금을 지원해 빈곤층 학생들의 장학금을 돕고, 비정기적으로 동절기 소외 계층 지원, 긴급 재난 구조, 소방차 및 각종 소방 기재, 장애인 전용 버스 등을 위한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중화민국 94년(2005년)에 반차오 원화로(板橋文化路)에 건축된 문화 센터에서는 불교 강좌 및 각종 예술 문화 행사와 교육 커리큘럼을 열고, 개간지와 농민력을 편찬하는 등 공익 자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불법을 널리 알리고 민생을 이롭게 함으로써 민심을 교화하고 사회 복리에 이바지하는 것을 근본 취지로 삼고 있습니다.

종루

중전(中殿)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종루는 좌우 꼭대기에 수호용이 있고, 육각형 누각 외관에 3층 처마를 갖추고 있습니다. 1층은 회랑과 기둥으로 둘러싸인 건축물로, 이곳의 종과 북은 ‘새벽 종소리와 저녁 북소리’로 시간을 알려주는 용도 외에 의식을 거행할 때 예기의 기능도 합니다. 종루 내부에 걸려있는 종은 청나라 동치 4년(1865년)에 건조된 것으로, 룡산사의 유구한 역사를 증명합니다.

정전 신령¹₆ 후전 신령⁷₂₅

관세음보살

속칭 ‘관음불조(觀音佛祖)’, ‘관음마(觀音媽)’라고도 하며, 아미타불, 대세지보살(大勢至菩薩)과 함께 대승불교의 ‘서방 삼성(西方三聖)’이라고 불립니다.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 포격을 당해 정전은 전파되었으나, 관음보살 신상만은 연화좌에 태연하게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신도들이 모두 ‘석가모니의 현령(佛祖顯靈)’이라 칭하기도 했습니다.

문수보살

대승 불교의 4대 보살 중 하나로, 정식 명칭은 ‘문수실리(文殊室利)’입니다. 문수보살은 지혜를 상징하며, ‘대지문수보살(大智文殊菩薩)’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보현보살

대승 불교의 4대 보살 중 하나로, 정식 명칭은 ‘삼만다발타라(三曼多跋陀羅)’입니다. 보현보살은 덕행을 상징하며, ‘대행보현보살(大行普賢菩薩)’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위타호법

사원의 수호신으로 ‘위타천(韋駄天)’이라고도 합니다. 바라문교(婆羅門教)의 천신이라 전해지며 불교의 사대천왕인 서른두 장수 중 우두머리라는 설도 있습니다.

가람호법

사원의 수호신입니다. ‘가람’은 원래 범문을 음역한 것으로 ‘승려들이 머무는 정원’이라는 뜻인데, 나중에 수호신이라는 의미로 확대되었습니다.

십팔나한

‘십팔존자(十八尊者)’라 불리기도 하며, 석가모니의 득도한 제자입니다. 원래는 열여섯 분이었는데, 불교가 동쪽으로 전해지면서 두 분이 늘었습니다. 부처의 가르침인 사성제(四聖諦)를 연마해 생사의 윤회를 벗어나 열반에 이른 성자로, 그 모습은 각지의 사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룡산사에서는 십팔나한과 산신, 토지신, 사해 용왕을 함께 모시고 있습니다.

대괴성군

‘문괴부자(文魁夫子)’ 또는 ‘괴성(魁星)’이라고도 합니다. 괴성은 복두칠성 중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별(천추天樞, 천선天璇, 천기天機, 천권天權)을 가리키는 것으로 복두칠성의 형태로 배열됩니다. 도교 신앙에서는 규성(奎星, 괴성과 같은 의미)을 ‘굴곡이 균일한 것이 글을 쓴 것 같다’고 했으며, 문운을 주재하는 신으로 여겼습니다.

문창제군

‘재동제군(梓潼帝君)’이라고도 하며 인간의 글, 학문, 관록(官祿) 등을 관장합니다. 도교 신앙에서는 문창제군과 관성제군(關聖帝君), 대괴성군(大魁星君), 주희(朱熹), 여동빈(呂洞賓)을 함께 ‘5대 문창’이라 부릅니다.

마야

관록(官祿)을 상징하는 신으로, 문창제군이 타던 말의 이름이 ‘녹마(綠馬)’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출세나 시험 합격을 기원할 때 기도하는 대상입니다.

자양부자

송대의 대학자 주희(朱熹)를 가리킵니다. 주희는 푸젠(福建)에 ‘자양서실(紫陽書室)’을 설립한 바 있으며, 주자 학설을 제창해 명성을 얻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서원에서 주신으로 모십니다.

복덕정신

통칭 ‘토지공’이라고 부르며, 토지를 관장하는 신입니다. 전통문화에서는 토지신을 모시는 것이 곧 대지를 모시는 것이었으며 오늘날에는 축원, 재물 기원, 평안 기원, 풍년 기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황아

성황은 성지 수호신으로, 그 전신은 수용신(水庸神)이며 고대 수용(황성을 가리킴)의 제사에서 기원했습니다. 선악 상벌을 관장하며, 명계에 속하는 지방관입니다.

용야

고대 용신 숭배와 해신 신앙에서 기원했으며, 날씨를 관장하는 능력을 지녔습니다. 어민들이 많이 모시며, 농민들이 비를 기원하는 우신(雨神)이기도 합니다.

수선존왕

중화 문화의 해신 중 하나로, 항해업과 무역상들이 모시는 신입니다. 지역별로 모시는 수선존왕이 모두 다른데, 룡산사에서는 치수에 능한 ‘대우(大禹)’를 주신으로 모시며, 좌우에 각각 시종 두 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수선묘의 시종 네 분은 각각 오자서(伍子胥), 굴원(屈原), 이백(李白), 왕발(王勃)입니다.

태양성군

‘태양공(太陽公)’, ‘일신(日神)’이라고도 합니다. 빛으로 대지를 고루 비추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푹니다. 또한, 세시를 정확하게 기록해 자연 숭배 신으로 모시기도 합니다.